tvN '도깨비', 4주 연속 콘텐츠 파워지수 1위

드라마 '도깨비'가 4주 연속 콘텐츠 파워지수 1위를 차지했다. 콘텐츠 회사 CJ E&M이 1월 31일 발표한 셋째 주(1월16일~22일) 콘텐츠 파워지수(CPI)에 따르면 tvN 드라마 '도깨비'가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SBS 월화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

정우성이 연기한 '더 킹' 부장검사…실제인물 있다?

뉴스인사이드

노골적인 묘사로 현실 속 인물과 오버랩
2004년 박근혜 의원 장면은 영화 지향점
감찰부 여검사 캐릭터 '도가니 사건' 모델

알고 보면 더 재밌다. 영화 '더 킹'의 제작과정 속 숨겨진 이야기가 관객의 호기심을 다시 자극한다. 사진은 영화 속 한 장면. 사진제공 | 우주필름

마치 현재 시국을 예언한 듯하다. 검사 등 일부 법률가 출신 '권력자'들의 '직권남용' 혐의가 짙어지고, 그로 인한 심각한 피해의 아픔이 속속 드러나는 최근 상황을 미리 들여다본 것일까. 영화 '더 킹'의 관객이 500만명에 다다르면서 작품 탄생의 배경을 둘러싼 궁금증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제작과정을 향한 호기심도 이어진다. '더 킹'의 제작과정에 얽힌 몇 가지 뒷이야기를 소개한다.

●왜 검찰이 주인공인가

그동안 검찰 혹은 검사를 주인공 삼은 영화는 많았지만 그 세계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작업에서 '더 킹'의 완성도는 단연 탁월하다.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한 한재림 감독이 영화를 처음 기획한 때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당시 사건을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으로 기억하는 한 감독은 "법조인이 아닌, 정치 검찰에 대한 이야기를 그려보고자"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다.

관객은 정우성이 연기한 한강식 부장검사가 현실 속 두 명의 인물을 떠올리게 한다는 반응을 꺼낸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다.

이에 제작진은 "관객의 다양한 반응 중 일부"라고 밝히고 있지만, 감독의 '의도'가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노골적인 묘사 때문이다. 검찰의 표적 수사에 걸린 정치인의 소환을 검찰청사 안에서 내려다보며 커피를 마시는 정우성의 모습은 '정치적 권력'을 쥔 검찰의 강렬한 상징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역대 대통령 에피소드, 시나리오부터 있었나

'더 킹'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총 7명의 대통령이 나온다. 이들의 실제 재임 시절 모습은 물론 각기 임기 시절을 대표하는 사건을 담은 뉴스 장면으로 현실감을 높인다. 특히 극중 검찰은 대통령을 만드는 숨은 권력으로까지 묘사된다. 점쟁이를 찾아가 굿판을 벌인 끝에 받아낸 후보를 밀기 위해 상대 후보의 약점이 담긴 수사 자료를 흘리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전·현직 대통령을 다룬 다양한 에피소드는 허구이기도,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 여부를 떠나 처음 시나리오를 충실히 따랐다. 편집 과정에서 맞닥뜨린 국정농단 사태 탓에 다소 민감할 수 있는 내용도 빠짐없이 담았다.

일련의 과정에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당시 박근혜 의원이 미소 짓는 모습도 스크린을 채운다. 이는 영화의 지향을 드러내는 결정적 장면으로 꼽힌다.

정작 잘려나간 장면은 따로 있다. 정우성과 조인성의 승마 장면이다. 전체 흐름에서 빠져도 무방한 내용인데다 주제와 무관한 특정인을 떠올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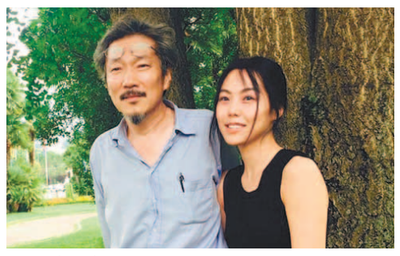
●부패검사 잡는 여검사, 실제 모델 있나

영화에는 부패한 검사를 잡는 열혈 여검사도 등장한다. 배우 김소진이 연기한 감찰부 소속 안희연 검사다. 이는 경기 의정부지검 임은정 검사를 모델 삼아 완성한 캐릭터이다.

임은정 검사는 2007년 광주인화학교 청각장애아 성폭행 사건인 일명 '도가니 사건'으로 유명한 인물. 성폭력 피해자 인권을 강조하는 글과 활동으로 주목받았다. 이를 기억한 한재림 감독은 "혼자 법무부와 맞서는" 그의 활약상을 찾아 영화에 녹여냈다.

임은정 검사는 최근 SNS에 "검찰이 제 기능을 제대로 한다면 그리 썩어 들어갈 수 없다"며 "'더 킹'은 검찰이 자정능력을 어느 정도 회복했다는 희망적 미래를 슬쩍 보여줘 기쁘게 영화관을 나섰다"고 썼다. 이해리 기자 goff1024@donga.com

연예뉴스 스테이션



홍상수(왼쪽) 감독과 김민희

홍상수 감독·김민희, 베를린영화제 참석 예정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가 2월9일(현지시간) 개막하는 제67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함께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이번 영화제 공식 경쟁부문에 연출작이자 출연작인 '밤의 해변에서 혼자'로 초청받았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이 레드카펫에 함께 나설지 관심거리로 떠올랐다. 영화제의 영화 상영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지난해 스캔들의 당사자로서 세간의 시선을 받았다.

tvN '인생술집',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변경

신동엽과 탁재훈 등이 진행하는 케이블채널 tvN 예능프로그램 '인생술집'이 청소년관람불가로 시청 등급을 변경한다. tvN 관계자는 1월31일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는 취중진담 콘셉트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며 "15세 이상 관람가 때보다 조금 더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해 맞춤 편집한다"고 밝혔다. 등급이 오른 '인생술집'은 2일 게스트 이다해 편부터 시작한다.

블랙핑크

블랙핑크 '붐바야' 뮤비 유튜브 조회수 1억건

걸그룹 블랙핑크의 데뷔곡 '붐바야'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수 1억건을 돌파했다. 1월31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붐바야' 뮤직비디오가 공개 177일째인 이날 오전 5시 1억2만6826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8일 공개된 뮤직비디오는 5일 만에 1000만, 2주 만에 2000만 조회수를 돌파하는 등 빠른 속도로 수치를 늘린 바 있다. '붐바야'는 데뷔 싱글 '스퀘어 원'과 더블 타이틀곡으로, 강렬한 드럼 비트가 인상적이라는 평을 받았다.

손태영, 4년 만에 지상파 드라마 복귀

연기자 손태영이 MBC 새 주말드라마 '당신은 너무합니다'를 통해 4년 만에 지상파 방송 드라마에 복귀한다. 2014년 종편채널 TV조선의 '불꽃속으로'에 출연했지만 지상파 방송 채널은 2013년 KBS 2TV '최고다 이순신'이 마지막이다. 3월4일 첫 방송하는 '당신은 너무합니다'에서 손태영은 정겨운의 약혼녀이자 대학 총장 할아버지를 둔 양가집 규수 홍윤희를 연기한다. 엄정화와 대립각을 이루는 인물이기도 하다. 드라마 관계자는 1월31일 "손태영이 깊이 있으면서 기존에 보여주지 않았던 또 다른 매력을 어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줄줄이 입대하는 스타들…연예계, 대안찾기 고심

'빅뱅' 탑

29~30세 탑·김준수·김수현 입영대기
드라마업계 군필 연기자 위주로 캐스팅

김준수 주원 김수현

한류 열기를 이끌며 현재 연예계를 대표하는 스타들이 올해 대거 입대한다. 대부분 만 29세로 더 이상 입대 연기가 되지 않는 1987년생(1988년 2월생까지 포함)인 이들은 복무를 시작하기 직전까지 자신들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연예계는 이후 그 공백을 메울 대안을 찾느라 분주하다.

2월9일 빅뱅의 탑(30)과 JYJ의 김준수(30)를 시작으로 유아인(30), 이민호(30), 김수현(29), 장근석(30), 주원(30), 지창욱(30), 서인국(30), 슈퍼주니어 규현(29), 제국의아이들 광희(29), 2PM의 택연(29) 등이 올해 줄줄이 입대할 예정이다. 이들 가운데 유아인은 지난달 15일 대구지방병무청에서 병역등급보류 판정을 받고 검사 결과의 부상 부위에 대한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 그를 제외하고 다른 스타들은 입영 대기자가 많아 정확한 입대 일정을 알 수 없지만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입대 통보를 받는 대로 군 복무를 이행할 계획이다.

입대하게 되는 스타들은 가능하면 그 직전까지 최대한 시간을 활용하겠다는 생각이기도 하다. 입대 2~3일 전까지 활동해 군 입대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빠르게 변화하는 연예계 환경에서 2년의 공백은 짧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이다.

탑과 김준수는 설 연휴 전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예정된 해외 공연과 뮤지컬 등을 빼곡히 소화하며 현재 모든 일정을 마친 상태다. 5월 입대 예정인 주원은 같은 달 첫 방송하는 SBS 드라마 '엽기적인 그녀' 촬영에 한창이다. 사전제작 드라마의 주연으로서 조만간 촬영을 마치고 홍보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하반기 입대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김수현은 그 전까지 소화할 수 있는 작품을 검토 중이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곧바로 입대한다는 계획이지만 다른 스타들보다 시간적 여유가 있어 그 기간 열정을 불태우겠다는 각오다.

이처럼 군 입대를 목전에 둔 이들이 저마다 각종 드라마와 영화, 예능프로그램 등에서 스타 파워를 자랑해왔던 만큼 그 빈자리를 연예계가 어떻게 채울지도 관심거리다. 드라마업계에서는 일찌감치 대안을 찾았다. 통상적으로 제작 6개월 전 캐스팅을 마무리하는 드라마업계에서는 현빈, 유승호, 이준기 등 군필 연기자들을 비롯해 내년 이후 입대하는 김우빈, 이종석, 임시완 등을 위주로 작업하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언랩3 준우승' 나다, 소속사와 갈등

〈언프리티 랩스타〉

매출정산 요구하며 계약해지 가처분신청
마피아레코드도 '독자활동 금지' 맞대응

나다

엠넷 '언프리티 랩스타'로 유명세를 얻은 걸그룹 와썹의 나다(윤예진·26)가 소속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1월31일 한 관계자에 따르면 나다는 설 연휴 직전 소속사 마피아레코드 측을 상대로 계약해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소속사 측은 나다에 대해 출연 금지 가처분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나다는 작년 9월 래퍼들의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언프리티 랩스타3'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주목받았다. 이를 계기로 나다는 광고 출연 등 여러 기회를 얻기 시작했고, 나다가 속한 와썹은 4년 만에 무명 탈출의 계기를 마련했다. 마피아레코드 입장에서도 새로운 스타 탄생에 대한 기대가 컸다. 하지만 나다가 대중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불거진 갈등으로 모두가 어렵게 얻은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양측의 갈등은 나다가 정산에 관한 문제를 소속사에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나다는 '언프리티 랩스타' 이후 자신이 일으킨 매출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며 작년 12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에 마피아레코드 측은 실질적인 매출이 아직 크지 않은데다 연습생 시절 각종 트레이닝 비용과 2013년 데뷔 이후 투입된 활동 비용 등에 대한 변제 이후 관련 정산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전속계약서에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나다는 이에 수긍하지 않고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어 클럽행사에 출연하는 등 독자 활동에 나서자 마피아레코드 측도 나다에 대해 출연 금지 가처분신청을 준비 중이다. 동시에 나다와 "원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블랙 팬서' 한국 로케이션, 기대 반 우려 반

한국배우 출연여부 등 관심증폭 기대
'어벤져스2' 촬영지원 논란 재발 우려

할리우드 마블스튜디오의 새로운 히어로 무비 '블랙 팬서'의 한국 로케이션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3년 전 한국 로케로 화제를 키운 마블스튜디오의 '어벤져스:에이지 오브 울트론'이 불러모았던 실효성 논란의 기시감 탓이다.

'블랙 팬서'는 마블스튜디오(마블)가 새롭게 선보이는 시리즈다. 내년 2월 개봉을 목표로 제작 준비에 한창이다.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한국인 엑스트라 등 오디션을 진행한 데 이어 한국 로케까지 확정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마블의 배급사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는 '어벤져스2' 때와 같이 '블랙 팬서'의 촬영 시기와 장소는 비밀에 부치고 있다. 하지만 촬영 직전 로케 계획을 알려온 마블의 기존 제작방식을 고려하면 촬영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는다.

한국 배우의 출연 여부도 관심을 끄는 대목. 마블의 각 시리즈는 서로 연계된 이야기를 그리는 만큼 이번 '블랙 팬서'가 앞서 한국 로케를 진행한 '어벤져스2'와 연결된 내용을 담을 것이라는 전망도 설득력을 얻는다. 이에 따라 '어벤져스2'에 출연한 수현의 참여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하지만 우려도 따른다.

마블의 첫 한국 로케 영화인 '어벤져스2'는 2014년 3월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보름간 촬영했다. 로케에 따른 화제에 힘입어 2015년 개봉해 1049만 관객 동원에 성공했다. 북미와 중국에 이은 최대 흥행 수치다. 당시 마블은 서울을 '첨단의학과 선진 IT기술이 집약된 도시'로 그리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단순한 '배경'에 그쳤다는 지적도 거셌다. 한국관광공사가 전망한 연간 876억원 소비지출 효과 역시 '기대치'에만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블랙 팬서'의 한국 로케도 제작비 지원, 화제성 극대화, 흥행으로 이어지는 '어벤져스2' 성공모델을 또 다시 노린 것 아니냐는 시선이 나온다. 실제로 '어벤져스2'는 로케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외국 영상물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따라 한국에서 쓴 100억원 가운데 27억여원을 돌려받았다. 이는 마블 영화에 열광하는 마니아 팬 사이에서도 로케의 실효성을 비판하는 빌미가 되고 있다. 이해리 기자 goff1024@donga.com

음악 랭킹

자료: 멜론
1월 23일~1월 29일

1위 음악 정보보기

순위	곡명	아티스트
1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에일리
2	Beautiful	Crush
3	Stay With Me	찬열, 펀치
4	기다렸다 가	다이나믹 듀오, 첸
5	좋다고 말해	볼빨간사춘기
6	I Miss You	소유
7	에라 모르겠다	BIGBANG
8	행복한 척	수지
9	당신의 밤 (Feat. 오혁)	황광희 X 개코
10	오랜 날 오랜 밤	악동뮤지션

편집 |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